무의식과 시간에 대한 엘리아데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젊음 없는 젊음』에 나타난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안 신**

1. 서론: 엘리아데의 종교학과 문학의 만남
2. '종교적' 루마니아 민족주의의 탄생
3. 무의식의 침입과 의식과의 대화
4. 방황하며 성장하는 '종교적 인간'
5. '내면의 빛'을 회복한 우주적 그리스도
6. 결론: 분석심리학적 엘리아데 읽기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목표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청중을 "각성"시키려 했고,
그들이 (새로운) 사상들을 만나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방식을 변화시키려 했다."
– 엘리아데의 Autobiography 중에서[3)]

1. 서론: 엘리아데의 종교학과 문학의 만남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1986)는 미국 시카고대의 종교학교수로 안착하기 전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최근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1945년 전의 유럽에서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치열하였다. 18세가 되기까지 그는 이미 백 편이 넘는 논문을 썼고 학부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강의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박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HU-20090011).

**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 연구박사

3) Mircea Eliade, *Autobiography*, vol. 1, trans. by Mac Linscott Ricketts (London: Harper & Row, 1981), p. 237.

를 참석하기보다는 독학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였다. 인도에서 수학하는 동안에도 영국의 폭압적 식민지정책 아래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목격했고 요가를 수행하였다.[4]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는 루마니아 문화부흥을 주도하는 저명한 젊은 저술가로 성장하였다. 종교학자 엘우드(Robert Ellwood)는 세계는 잊었을지 몰라도 엘리아데의 내면세계에는 그 열정적 젊음의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출몰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엘리아데는 심층심리학을 존재론과 결합하여 성스러움의 종교심리학을 새롭게 구축하였다.[5]

엘리아데는 시간과 의식의 문제로 고민하였다. 인간은 시간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시간 너머,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불멸의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시간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시간의 좌표를 가상의 세계에 홀로 창조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결말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를 조우하며 엘리아데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 삶의 유한성과 사후의 무한성을 고민하였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맞으며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불가피한 시간의 단절 앞에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과의 숙명적인 이별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삶 자체를 승화시켜왔다. 그렇다면 엘리아데는 자신의 죽음을 나름의 방식으로 예견했던 것인가?

엘리아데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모국을 떠났고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하며 프랑스와 미국에서 오랜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말년에 발표한 소설, 『젊음 없는 젊음』(*Youth without Youth*)에서 70대 노인이 경험한 몽환적 시간여행의 이야기를 다룬다.[6] 1938년 루마니아는 20세기 전반기의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있었다. 이 소설은 그의 다른 소설들처럼 자서전적인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스

---

4) 안 신,「엘리아데의 종교학과 인도철학의 영향: 그의 종교경험과 인도수학(1928-1931)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51집 (2008년 6월), pp. 135-162.

5) Robert Ellwood, *The Politics of Myth: A Study of C. G. Jung, Mircea Eliade, and Joseph Campbell*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p. 79-85.

6) Mircea Eliade, *Youth without Youth*,trans. by Mac Linscott Richet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루마니아어로 1978년과 1979년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되었고, 불어로는 1982년에, 다시 영어로는 1988년에 번역되었다. 2007년에 코폴라(Coppola, Francis Ford) 감독이 영화로 제작한 후에 한국에는 2008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영화는 소설의 내용이 달리 편집되고 촬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엘리아데의 소설 『젊음 없는 젊음』을 인용할 경우에 각주 대신에 괄호 안에 페이지번호를 밝혔다.

도교의 양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을 전후로 엘리아데와 비슷한 연령의 한 노인에게 신비로운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다. 엘리아데는 신비적 사실주의의 기법을 동원하여 깨어진 연인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한 노인의 회춘을 그리며, 한 여성의 윤회를 분석심리학적 시각에서 풀어나간다. 이 소설에서 독자들은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언어와 의식의 기원, 나아가 시간과 무의식의 기원을 탐색하게 된다.

종교학자 에릭 샤프(Eric Sharpe)는 엘리아데가 칼 융(Carl G. Jung)의 분석심리학으로부터 받은 학문적 유산을 지적하였는데[7], 『젊음 없는 젊음』은 의식과 무의식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스위스 산간지역에서 무의식이 한 여성의 의식으로 침범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융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거론될 만큼 분석심리학의 영향이 뚜렷하다(97).

엘리아데가 소설가이며 종교학자로서 지금까지 천착해 왔던 세계의 종교들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인류를 향하여 다양한 설명체계를 제시한다. 죽음 저편의 비가시적 세계가 엄존함을 증언하는 가운데, 신화와 경전의 방식으로 혹은 교리와 철학의 형태로, 종교전통들은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지복의 세계를 신자들에게 소망하게 하거나, 반복되는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 자유(해탈)의 경지(열반)를 제시하고, 신선이 누리는 영생불사의 초월적 경지를 가르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인들은 역사의 혼란과 불가피한 폭력에 직면하면서도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고 고통을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는 성스러운 담론의 힘으로 형성된 독특한 세계관을 인류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문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삶을 보다 심오하고 풍요로운 의미의 세계로 변화시킨다.

엘리아데는 초창기에 인도에서의 요가 수행의 경험을 토대로 종교학적 통찰력으로 구성된 자서전적 단편소설 『마야트레이』(*Maitreyi*, 1930)를 발표하였다. 그가 사망한 후에 메타 이론적 비평가들이 엘리아데의 개인적 경험과 문학적 상상력을 엄밀한 의미에서 '비과학적' 영역으로 간주하며, 엘리아데의 종교학적 학문세계와 그 기여에 대한 평가를 축소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필자는 엘리아데와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문학과 종교학 모두에 담겨있는 '상상력'의 저장고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아데의 문학이

---

7) Eric Sharpe,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1975), 윤이흠·윤원철 역, 『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86), pp. 264-268. 샤프는 9장 종교와 무의식에 이어 10장 종교현상학을 기술하면서 엘리아데를 융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분석심리학적 성향의 학자로 설명한다.

그의 철학과 종교학을 검증하는 실험실(laboratory)이었다면, 엘리아데의 사상은 문학의 지평을 넓혀주는 지도(map)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학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종교학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8)]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엘리아데의 『젊음 없는 젊음』을 중심으로 엘리아데가 바라보는 시간과 의식의 기원을 융의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작가 엘리아데가 처했던 루마니아의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가 선택했던 '종교적' 루마니아 민족주의의 형성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혼돈 가운데 소설의 기본 축을 이루는 무의식의 침투와 의식과의 대화를 검토하고, 셋째로, 엘리아데가 소설을 통해 지향하는 새로운 인류의 특성을 방황과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넷째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내면의 빛'을 회복해야한다는 엘리아데의 구원론이 지닌 구조를 탐색할 것이다.

2. '종교적' 루마니아 민족주의의 탄생

"나는 무의미를 존재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의미를 만들고 부여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다."
- 엘리아데의 *Ordeal by Labyrinth* 중에서[9)]

소설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text)의 상황, 즉 콘텍스트(context)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젊음 없는 젊음』은 엘리아데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운 정치경험을 했던 1930년대 후반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엘리아데는 인도에서 3년 간(1928-1931) 산스크리트어와 요가를 수학했고 1931년 루마니아로 돌아와 군복무를 마쳤다. 2년 뒤 1933년에 엘리아데는 자신의 인도경험을 기초로 하여 『마야트레이』를 출판하여 루마니아 문학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해 엘리아데는 요가철학에 대한 박사논문을 부쿠레슈티대학에 제출하고 모

8) 안 신,「엘리아데의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학에 대한 연구 - 그의 자서전적 소설 《마야트레이》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13호 (2008), pp. 238-260.

9) Mircea Eliade, *Ordeal by Labyrinth: Conversations with Claude-Henri Rocquet*, trans. by Derek Colt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167.

교에 남아 논리학자 나에 이오네스쿠(Nae Ionescu, 1890-1940)교수의 조수로 근무하면서 형이상학을 강의하였다. 엘리아데의 스승 이오네스쿠는 루마니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서 서유럽의 합리주의에 반대하며, 언론계와 학계의 활동을 통하여 실존주의와 신비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10] 그는 엘리아데를 비롯한 당시 젊은 루마니아 지식인들에게 깊은 사상적 영향을 주었지만, 카롤(Carol) 2세를 지지하는 유대인 재력가들을 비판하다가 결국 구속되었고 출감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젊음 없는 젊음』에 나타나는 독일 나치의 납치시도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엘리아데가 이오네스쿠로부터 받은 루마니아 민족주의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엘리아데는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로 남는 대신에 '초정치적' 입장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1934년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오네스쿠와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에 반발하여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루마니아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11] 소설의 주인공 도미니크 마테이가 회춘과정에서 루마니아 민족주의 지도자로 '오인'을 받게 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엘리아데는 자신의 독특한 정치적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젊은 엘리아데는 활동하는 사상가였다. 그는 공산주의와 유대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루마니아의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려던 코르넬리우 코드레아누(Corneliu Codreanu, 1899-1938)가 창설한 좌파 전체주의 정치단체 '철위대'(Garda de Fier, Iron Guard)에 참여하였다. 이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엘리아데는 수차례 관련 잡지에 기고하였다.[12] 철위대는 1927년에 코드레아누가 창설한 '대천사 미카엘군단'의 하부 군사조직이었지만, 외부자들은 미카엘 군단 전체를 '철위대'와 동일시하였다. 코드레아누의 지지자들은 공산주의와 유대주의를 강력히 비판하였고, 종교적 신비주의를 결합시켜 루마니아 민족주의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군주를 옹호했던 왕당파는 이 운동의 위세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조직적으로 미카엘 군단을 탄압하였다. 미카엘 군단도 이에 맞서 테러 전술을 사용하였다.[13]

---

10) Ivan Strenski, *Four Theories of Myth in Twentieth-Century History*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1987), pp. 92-97. 스트렌스키에 따르면, 유럽주의자 혹은 근대주의자에 대항하여 이오네스크는 "비합리적인 전통주의"(irrational traditionalism)를 주창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루마니아 정교회 농민들을 중심으로 종교적 개혁을 감행하려 했다. 루마니아의 전통, 신화적 종교적 가치, 민중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는 이 흐름은 엘리아데를 비롯한 루마니아의 젊은 지식인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

11) Ellwood, *The Politics of Myth*, p. 85.

12) Bryan Rennie, "The Life and Work of Mircea Eliade," In *Mircea Eliade: A Critical Reader*, ed. by Bryan Rennie (London: Equinox, 2006), p. 10.

13) Strenski, *Four Theories of Myth*, pp. 97-103. 엘리아데는 루마니아 정교회의 영향을

『젊음 없는 젊음』에서 루마니아 비밀경찰과 독일의 게슈타포가 도미니크를 계속해서 쫓는 이유가 바로 미카엘 군단의 지도자로 '오인'되었기 때문이었다.

1937년 철위대가 창설한 민족당은 루마니아정계의 제 3당으로 성장할 만큼 정치력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철위대의 의세에 몰려 정부여당은 철위대를 비판하였고, 갑작스러운 세력 확대에 불안을 느낀 카롤 2세도 1938년에 전격적으로 내각을 해산시켜 정부를 장악하였다. 그는 독재를 감행하기 위하여 그해 4월부터 코드레아누와 철위대 지도자들을 긴급 체포하였다. 구속된 군단 지도자들 중 코드레아누를 비롯한 핵심인물들이 탈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역사의 폭력 아래 엘리아데도 7월에 체포되었고 4개월 후에 기적같이 사면되었다는 사실이다.

엘리아데는 1940년 4월 런던 주재 루마니아 문화관으로 파견된 후에 미카엘군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1940년대 엘리아데가 떠나 있던 루마니아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최근까지도 엘리아데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맞물리면서 그의 종교이론도 일종의 인종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엘리아데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1938년에 자신을 포함한 미카엘군단의 목표는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쇄신운동이었다. 철위대는 정치권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위하여 예배, 금식, 기도 등의 종교 활동에 전념하였고, 초기에는 강압적인 정치적 탄압에 대하여 비폭력으로 맞섰다.[14]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루마니아는 중립국을 선언하였지만, 정치적 내분이 거듭되면서 1940년 9월 정권을 장악한 미카엘 군단이 카롤 2세를 강제로 폐위시켰다. 군단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새로운 정부는 동맹국에 가담하며 독일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갔다. 군단은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살해하였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약탈하였다.[15] 그러나 1941년에 안토네스쿠(Ion Antonescu, 1882-1946)가 군단의 세력을 제거하고 루마니아의 '지도자'(Conducator)로 부상하면서 더 조직적인 유대인학살(pogrom)이 이루어져 무려 30만 명에 이르는 유

받아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성탄절보다는 그의 재생과 관련된 부활절을 더 강조한다. 루마니아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철위대도 루마니아의 종교적 '부활'을 추구했다. 이 점에서 정교분리의 서구적 이분법은 엘리아데를 이해하는데 혼선을 줄 뿐이다.

14) Mircea Eliade, *Autobiography*, vol. 2. trans. by Mac Linscott Ricket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 62-66.

15) Eliade, *Autobiography*, vol. 2., p. 85. 엘리아데는 1941년에 접어들면서 철위대가 이전의 종교적 명분을 상실한 채 유대인학살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회상한다.

대인이 사망했는데, 루마니아는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이처럼 유대인학살이 진행되는 동안에 엘리아데는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파견되어 미카엘군단의 정부(1940-1941)와 이후 설립된 안토네스쿠 정부(1941-1944)의 홍보담당관직으로 활동하며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맞았다.

엘리아데의 입장에서 반유대주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해명은 가능하다. 그가 철위대의 초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1940년 외교관의 신분으로 루마니아를 떠난 후에는 간접적인 홍보활동에만 관여했을 뿐 유대인 학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철위대의 운동을 통하여 루마니아 정교회에 기초한 사회의 변혁을 시도하면서도 서유럽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엘리아데는 인도의 간디와 그의 비폭력운동을 일종의 신비주의로 간주하며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

엘리아데가 40세가 되던 1947년에 루마니아는 최종적으로 공산국가가 되었고 이후 42년 뒤인 1989년에 민주화를 맞게 되기까지 공산독재를 경험하였다. 그는 결국 사상적 이유로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프랑스에 남았고 두메질(Georges Dumezil)의 도움을 받아 파리고등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며 작가와 학자로서 활동했다. 당시 루마니아의 공산정부와 그 비밀경찰은 망명생활을 하는 엘리아데를 '노동자의 적', '서방의 스파이', '철위대의 선동가', '독재자(포르투갈의 살라자)의 지지자', '게슈타포의 첩자' 등으로 묘사하며 그를 비판했지만, 루마니아 밖에서 엘리아데가 이룬 종교학과 문학에 대한 업적에 대한 서방세계의 찬사는 계속 이어졌다.[16]

최근 종교학자들이 엘리아데가 '반유대주의자인가' 혹은 '인종차별주의자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젊음 없는 젊음』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38년 부활절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는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엘리아데 자신에게 실존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료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카엘 군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엘리아데는 다른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구속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생명을 잃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루마니아를 휩쓸었던 '역사의 폭력'에 대한 엘리아데의 해석이며 증언으로 볼 수 있다. 엘리아데는 반유대주의와 관련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과거를 소설의 형식으로 회상하며 신비적 종교상징을 통하여 자신이 처했던 필연적 상황을 설명

16) Shin Ahn, "Rethinking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Mircea Eliade," XXII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August 1, 2008.

하고 있는 것이다.

3. 무의식의 침입과 의식과의 대화

"사실상 우리는 항상 화산의 분화구 위에서 서 있는 셈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폭발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고,
더욱이 한번 폭발이 되어서 그 파편의 도달거리 이내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파멸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 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중에서[17]

융이 언급했던 것처럼 집단적 무의식의 침입으로서 종교경험은 인간의 계산된 참여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엘리아데의 소설에서 갑작스러운 사건들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신들림의 연속적 체험처럼 인간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발생한다. 우리는 『젊음 없는 젊음』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험난한 깨달음의 과정을 장소의 신속한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엘리아데는 구도자와 순례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간이 진정한 자아의 의미를 탐색하는 삶을 하나의 긴 여정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구도의 여행은 외부의 자극 없는 자발적인 진리의 탐색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상황과 끊임없이 조우하며 씨름하는 실존의 계속되는 결정들로 구성된다.

70대의 노인 도미니크는 고향 루마니아를 떠나 스위스, 인도, 말타, 아일랜드를 거쳐 다시 루마니아로 귀환한다. 스위스는 정치적 망명을 위하여, 인도는 불교와의 조우를 위하여, 말타는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아일랜드는 시간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이동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돌아온 고향은 죽음을 용감하게 대면하기 위함이다. 동서양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 여행을 통하여 도미니크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세계에 대하여 깨닫는다는 점에서 여행은 내면적 심혼을 향한 '개성화의 과정'이다. 융은 이 개성화의 과정을 의식의 중심인 자아(ego)가 전체성의 중심인 자기(self)를 조우하여 변화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간주한다.[18]

---

17) Carl Jung, *Psychology and Religion*, 이은봉 역,『심리학과 종교』(서울: 창, 2001), p. 36.

18) Carl Jung, Grundwerk,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꿈에 나타난 개성화

도미니크는 인류의 언어와 의식의 기원을 탐색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만 그 모험을 위해 라우라와의 첫사랑을 희생시킨다. 라우라는 일의 성공에 매달리는 도미니크를 떠나고 다른 사람과 결혼 후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다. 『젊음 없는 젊음』은 총 6장의 여행기록을 통하여 신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영웅이 유년기에 유기되거나 성장한 후에 여행을 떠나 진정한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한 노인이 자살을 결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위기상황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박사가 인생의 황혼 무렵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거래를 통해 젊음을 되찾아 세계의 신비와 사랑을 찾아나서는 것처럼, 도미니크도 부활절에 번개를 맞아 젊음을 되찾는 신비체험을 한다. 예수가 죽음의 힘을 극복하듯이 도미니크도 죽음의 그림자를 자기도 모르게 물리친다. 카프카의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갑자기 괴물로 변하는 것과 유사하게 도미니크도 번개에 의한 전기충격을 통해 70대의 노인에서 20대의 젊은이로 회춘한다. 그가 번개를 맞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으며 회상하는 장면들은 첫사랑 라우라와의 대화들로 구성된다. 인생의 황혼을 맞으며 과거를 돌아보는 한 지식인은 부활절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의 기억들이 의식의 영역으로 침입해 온다. 이 억압된 기억들은 의식에서 사라졌지만 실존을 병들게 했던 기억들이다. 아름다웠지만 당시 그 의미를 몰랐던 기억들이다.

'푸른' 봉투에 든 흥분제로 자살하려는 것이 도미니크의 원래 계획이었지만 그에게 낯선 부카레슈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푸른' 봉투는 사라지고 '붉은' 장미가 그에게 주어진다(60, 129). 한 송이는 그의 오른손에, 두 번째 송이는 그의 무릎 위에,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후 마지막 세 번째 송이는 추억이 담긴 앨범 사이에서 꺼내어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올려 진다. 무의식이 의식의 자아에게 건네 준 세 송이의 장미는 젊음과 회춘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드릴 준비가 되었다. 장미는 서구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장미십자교(Rosicrucianism)에서는 서구의 정신세계를 갱신하는 상징을 의미한다.[19] 융 역시 장미십자교와 연금술전통에서 강조

과정의 상징』 (서울: 솔, 2002), pp. 10-12, 융에게 개성화 과정을 통한 분석과정은 항상 '잠정적'이다.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은 완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석과정은 총 9단계로 구성되는데, ① 충고, ② 고백, ③ 무의식과의 조우, ④ 유아적 심리에서의 탈출, ⑤ 환경 극복, ⑥ 고통의 사라짐, ⑦ 운명의 전환, ⑧ 소속감 혹은 개종, ⑨ 실용적 사회철학의 구축으로 일종의 전형적인 전진이 이루어진다.

19) 장미십자교에 대해서는 김종서, 「서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박승길, 김홍철, 『현대신종

되어 온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한 사회개혁의 중요성에 주목한 바 있다.[20]

번개는 자살하려는 도미니크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을까?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판 유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그리스도교 세계관에서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4)로 간주된다. 도미니크에게 떨어진 벼락 사건은 "천국"과 "구원"의 담론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한다(9). 과연 도미니크는 천벌(天罰)을 받은 것인가? 그러나 그 충격 가운데 의식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망각되었던 무의식의 파편들이 등장한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침입한 것이다. 벼락을 맞은 순간 과거에 대한 회상들이 도미니크의 의식 속에 일어난다. 도미니크는 젊은 시절에 과학에 심취하여 파리에 가서 중국어를 수학하려고 결심할 만큼 동양학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어 쇠퇴해 가는 기억력 때문에 강의 내용을 반복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도미니크는 무척 괴로워한다. 그는 젊은 시절 근원적이며 통합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 결국 실패자가 되어 버렸다. 그의 첫사랑 라우라는 그에게 소크라테스와 괴테처럼 일상의 삶을 통해 자신의 천재성을 실현하라고 조언했지만 도미니크는 당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11). 결국 학문과 여성에 대한 편력으로 도미니크는 라우라와 이별하게 되었다.

도미니크가 젊음을 회복하면서 기존의 이가 빠지고 새 이가 나온다. 재생과 부활의 상징이다. 국내외 언론들은 그의 회춘에 주목하였다. 그가 번개를 맞던 당시 이상하게도 도미니크가 걸었던 부카레슈티의 한 장소에서만 갑작스럽게 집중폭우가 내렸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 비가 우연히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폭약의 불을 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미니크는 우파 민족주의단체 미카엘 군단의 지도자로 '오인'되고 비밀경찰의 추적을 받는다. 엘리아데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도미니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낸다. 그러므로 루마니아의 문화를 '종교적으로' 재생하려던 엘리아데를 우리는 정치적인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미니크는 젊음을 되찾으면서 1차 세계대전 이래로 잃었던 힘과 확신의 회복을 느낀다(25). 그는 과거 루마니아의 "문화 부흥 운동"을 꾀하지만 강의준비로 시간을 낭비해 결국 연구의 기회를 놓친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제자들은 떠나고

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 53-57; Linda Edward, "The Rosicrucians," A Brief Guide to Belief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pp. 450-454을 참조하라.

20) Carl Jung, *Memories, Dreams, and Reflec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89), pp. 232-233. 융의 조부는 열광적인 프리메이슨(Freemason)이었고 스위스 지부(lodge)의 대사부(Grand Master)였다. 융의 심층심리학이 지닌 신비주의적 특징은 프리메이슨, 장미십자교, 연금술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의 학자로서의 명성도 쇄락해 간다. 성탄절 이브에 잠옷차림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도미니크의 괴벽이 심각해지자 그는 흥분제로 자살하기 위하여 부쿠레슈티로 떠난다.

결국 언어교수 도미니크는 사상범으로 몰리게 된다. 1938년 1월 8일에 70세가 된 도미니크는 알렉산더 쿠자 고등학교에서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를 가르쳤지만 날벼락을 맞고 회춘한 뒤에는 젊은 우파 청년지도자로 비밀경찰의 의심을 받는다. 은밀한 저택으로 이동한 후에 그의 과거와 기억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도미니크는 기억과다증(hypermnesia)으로 고뇌하지만 고향친구들은 그가 기억상실(amnesia)로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비밀경찰은 도미니크의 회춘을 철위대의 조작으로 파악하고 도미니크를 철위대의 지도자로 지목하여 체포하려고 한다. 그는 다시 젊어지면서 성애적인 꿈도 꾸고 수면 중에도 학습하는 초능력도 생긴다. 꿈에서 무의식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도미니크는 비밀경찰의 감시 아래 불면증(insomnia)과 몽유병(somnambulism)에 시달린다. 현실과 꿈의 교차를 경험하며 내면의 자아는 도미니크에게 윤회를 통하여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음을 알린다. 거듭된 삶을 탐색함으로써 역사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미니크는 육체의 회춘과 기억력의 강화를 통하여 무의식에 잠겨있던 새로운 인격을 만난다. 이 영혼(double)은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는 처음에 과거에 망각된 기억에 대하여 알기를 거부한다. 미국에서 그의 명성이 점차 커지자 독일에서도 도미니크를 납치하려 한다. 그는 모든 언어에 능통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간 표본"으로 간주되어 세계의 의과대학들이 도미니크를 실험하길 원하였다.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엘리아데가 지향하는 새로운 휴머니즘(new humanism)은 바로 이와 같이 망각된 무의식에 대한 발견을 통해 '총체적 인간'을 회복하고 대화를 통하여 방황 가운데 성장하는 인간을 회복하려는 일종의 신념이다.[21]

엘리아데는 무의식의 영혼을 "진정한 수호천사"로 간주한다(59). 그가 연류 되었던 천사장 미카엘군단의 종교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아는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실체를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는 신화적인 천사들이나 영혼들의 개념들로 남아 있다. 천사들은 다시 수호천사들, 힘들, 천사장들, 치품천사(Seraphim), 지품천사(Cherubim), 중재하는 존재들로 세분되며, 그들의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재자로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신적인 것, 이성과 사랑(Eros), 여성과 남성, 어둠과 빛, 물질과 영혼을 연결해 준다. 엘리아

21) Mircea Eliade,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1969), 박규태 역, 『종교의 의미: 물음과 답변』 (서울: 서광사, 1990), pp. 15-28.

데는 도미니크의 진술을 통하여 외부세계의 실체가 아닌 내면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60)를 발견하려 한다. 엘리아데는 『젊음 없는 젊음』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인간 의식 아래 있는 무의식의 실체를 폭로한다. 죽음의 목전에서 절망에 빠진 의식의 영역으로 망각되어왔던 자아의 잃어버린 반쪽, 아니 자아를 지탱하던 화산이 분출한 것이다.

4. 방황하며 성장하는 '종교적 인간'

> 모든 종교가 그 기나긴 내적 변화의 과정을 겪은 뒤에
> 결국 자율적 구조를 전개하고 이어서 독자적인 "형태"
> 그리고 그 뒤에 올 인류가 수용할 "형태"를 제시한다는 것은
> 분명하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종교도 없고
> 과거를 완전히 폐기하는 종교적 메시지도 없다.
> 태고부터 있어온 종교전통의 모든 요소 - 가장 본질적인 요소! -의
> 개조, 갱신, 가치 회복 그리고 통합이 있을 뿐이다.
> 엘리아데의 『샤마니즘』 중에서[22]

엘리아데에게 젊음은 육신의 회춘도, 정신의 확장도, 능력의 회생도 의미하지 않는다. 다가오는 문명이 바라는 신인류는 무의식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는 '종교적 인간'이다. 반면에 소설에 등장하는 독일 과학자 루돌프(Rudolf) 박사는 이성주의와 과학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도미니크를 이용하고 억압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히틀러의 심복으로 등장하며 전기충격으로 인간의 초인적 변형(mutation)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인물이다. 루돌프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게슈타포를 동원해 도미니크의 납치를 시도하지만, 도미니크는 사고로 위장해 중립국 스위스의 제네바로 피신한다. 바로 이 스위스에서 도미니크는 스위스인으로 환생한 라우라를 다시 만난다.

엘리아데가 종교학자로 재임하던 시카고대학은 록펠러재단에 의하여 세워졌다. 소설에서 도미니크도 미국의 록펠러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도서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인류문명보다 수 만 년 앞선 '새로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정신집중을 실천한다면 모든 인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된 인간이 역사적 존재를 넘어서는 자유가 있다고 확신한다. 획

---

22) Mircea Eliade, *Shamanism*, (1974), 이윤기 역, 『샤마니즘』 (서울: 까치, 1992), p. 31.

일적인 기계의 반복과 비교할 때 문화적 창조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재해석하는 기쁨을 가져다준다. 이처럼 도미니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초심리학적 현상(parapsychological phenomena)의 힘을 믿는다. 모든 행위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경험을 통해 철학적 원리를 수정해 나간다. 그는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회춘현상의 외적인 요인들을 탐색하기보다는 왜 하필이면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인류를 위한 보편적 지식을 소망 하던 젊은이가 노년에 모든 능력을 상실할 무렵에 다시 한 번 갑작스럽게 보편적인 지식이 그에게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도미니크는 스스로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신비주의자도 그렇다고 비밀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초자연적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숨기면서 이중생활을 시도한다. 도미니크는 자신을 세속적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인, 마술사, 보살의 존재들과 비교한다(75). 그는 후대에 자신이 깨달은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언어로 그 깨달음을 기호화한다. 이처럼 엘리아데가 이 소설에서 기대하는 신인류는 의식이 무의식과 조우하는 개성화과정을 통하여 동양의 종교적 가르침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성숙해 가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다.[23]

엘리아데는 도미니크의 회춘에 신비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암시한다. 우연히 만난 신비주의자 꽁트(Comte de Saint-Germain)는 도미니크가 인류에 대한 일종의 사명(mission)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1947년 유대교 에세네파가 남긴 사해문서가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으며, 영국 신비주의자의 말을 빌려 2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프랑스 성전기사단(Templars)과 독일 튜톤기사단(Teutonic Knights)의 신비적 갈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비문서의 발견들을 시대마다 필요한 은유적 '노아의 방주'로 파악하면서 변하지 않는 전통의 본질이 신비주의 문학, 예술, 음악, 시, 철학, 과학에서 발견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도미니크는 무분별한 과학주의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다. 자신의 초인적 능력을 숨기려고 하지만 노인학과 생물학을 연구하는 몬로(Monroe)박사와 미국기자 존스(Ted Jones)를 만남으로써 세상이 여전히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국가기관들에 의하여 도미니크의 재생과 회춘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는 조직적

---

23) Mircea Eliade, *Das Heilige und das Profane*, (1958),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pp. 153-156, 182. 엘리아데에게 비종교적 인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성상 종교적이므로 세속적 인간은 인간의 종교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으로 파괴되지만, 도미니크는 자신의 글을 통하여 현상의 본질이 후세에도 전달되기를 바란다. 도미니크는 자신의 "후기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변종경험을 회상의 형태로 증언함으로서 인류의 완전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느낀다. 그는 인류의 문명파괴와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초월적 인간의 가능성이 미래에는 "생각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의 등장에 있다고 본다. 바로 그 신인류는 역사의 폭력을 감내할 수 있는 '종교적 인간'인 것이다.

도미니크는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55년 여름 스위스 남부 산악지역에서 스위스 여성 베로니카(Veronica Buhler)를 우연히 만난다. 1938년에 루마니아에서 번개를 맞아 새롭게 탄생한 도미니크처럼, 그녀도 산간지역에서 번개에 맞아 의식을 잃고 새로운 자아, 즉 무의식의 침입을 경험한다. 도미니크가 '신인류의 아담'이라면 베로니카는 번개로 탄생된 '신인류의 이브'인 셈이다. 베로니카는 굴속에 갇혀 산스크리트어로 주문을 읊고 있다가 발견된다. 베로니카는 스위스에서 교사로서의 기억을 상실하고 7세기 불교철학자 찬드라키르티(Chandrakirti)의 제자였던 인도 여성 루피니(Rupini)로 거듭난다. 그녀는 불교의 진리를 탐색하기 위하여 여승(bhikuni)으로 출가한 후에 스승의 저서를 공부하다가 동굴 안에서 번개를 맞으면서 20세기 스위스에 나타난 것이다. 스위스의 의료진들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동양학연구소와 스위스의 융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로마에서 도착한 투치(Tucci)교수는 인도종교의 "환상"(maya) 개념을 이용하여 루피니에게 현재가 그녀의 미래라는 비현실적 사실을 설명한다(98). 도미니크는 동양학연구소와 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스위스에서 멀리 인도로 여행을 떠난다.[24]

인도 네팔 근처에서 요가자세로 명상하는 루피니의 유골을 발견하자 베로니카의 의식은 다시 돌아온다. 인도방송을 통하여 베로니카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윤회(metempsychosis)의 증거라는 의견 혹은 신들림이라는 의견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다. 사회적 주목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도미니크와 베로니카는 미국기자의 도움을 받아 지중해에 위치한 말타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그들의 동거는 밤마다 찾아오는 베로니카의 신들림으로 불행하게 된다. 베로니카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의 언어들을 입에서 토해내기 시작한다. 이집트어, 우가리트어, 원시엘람어, 수메르어를 말하면서 결국 언어분열 이전의 노아의 언어를 탐색할 수

24) Eliade, *Autobiography*, vol. 2., pp. 139-144. 엘리아데는 1945년 9월부터 파리에 머물면서 두메질뿐만 아니라 명망 있는 인도학자들을 만났다. 융이 활동하고 있던 에라노스학회에서 강연을 했고 이탈리아 동양학연구소의 투치교수의 초대를 받아 탄트리즘과 샤머니즘에 대한 강연을 했다.

있는 시점에 이른다. 그러나 영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로니카의 신심은 점차 쇠약해 가고 노화가 촉진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자신의 목전에서 병들어 가는 베로니카를 떠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은 도미니크는 그녀에게 작별을 고한다. 베로니카는 수녀가 운영하는 요양소로 보내지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도미니크는 홀로 아일랜드로 향한다.25)

엘리아데는 젊은 시절 인도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두 여성을 만남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를 인도했던 여신의 이미지가 이 소설에서도 라우라, 베로니카, 루피니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고, 그가 오랫동안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왔던 요가와 샤머니즘의 요소들도 혼합되어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표현되었다.

5. '내면의 빛'을 회복한 우주적 그리스도

> 인도의 성인들과 수도자들은 심층심리학이 나타나기
> 훨씬 오래 전에 무의식의 불투명한 영역을 탐험했었다.
> - 엘리아데의 『요가』 중에서26)

"우리는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가?"(113) 이 물음은 엘리아데의 소설을 관통하는 물음이다. 젊음을 되찾았지만 사랑하는 베로니카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도미니크의 비극적 상황과도 연관된 증언이기도 하다. 북방의 섬나라 아일랜드에서 도미니크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100년 동안 살도록 '저주받은' 사람들을 만난다. 루마니아가 주변의 슬라브문화에 둘러싸여 라틴문화의 섬으로 불리는 것처럼, 아일랜드도 개신교 국가 영국의 힘에 밀려 버거운 정치적 수난의 역사를 보내왔다. 인간 조건이 지닌 궁극적인 모호성은 바로 젊은 시절에는 백년 이상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막상 은퇴의 나이에 접어들면 풍족히 주어진 자유의 시간에 정작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연 인간은 시간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일까? 인간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엘리아데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희열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25) 코폴라감독은 영화에서 5장 아일랜드에서 만난 100년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락시켰다.

26) Mircea Eliade, *Yoga: Immortality and Freedom* (1958), 정위교 역, 『요가』 (서울: 고려원, 1989), p. 5. 엘리아데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것이다.

고 생각한다.

엘리아데는 먼저 도미니크의 지인 그레이(Linda Gray)의 기사를 통해 세계 공동체가 누려야 할 차이와 감사의 기쁨을 제안한다. 세상의 가장 추한 것조차도 "내면의 빛"(114)에 의하여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감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일랜드인 콜롬반은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힌두교의 수도사들이 실천하는 영적인 행복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도미니크는 농부, 목동, 어부와 같은 촌부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기도와 명상과 같은 투박한 영적 수련을 실천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무의미한 삶의 연장은 삶의 질적인 변화 없이는 오히려 인간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으로 삶을 무한히 연장하는 일보다 질적인 변화가 선행된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향유하는 일이 중요하다.[27]

시인이자 혁명가였던 브란(Sean Bran)을 기념하기 위하여 1855년에 세워진 흉상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55년 모임을 기획했던 콜롬반과 그의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하여 흉상 뒤 참나무 밑에 피해 있다가 번개를 맞는다. 그 사건 때문에 브란이 아닌 참나무가 유명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브란의 흉상에 설치한 폭탄이 비로 인하여 다행히 폭파되지 않았다고 발표한다. 엘리아데는 이러한 담화의 나열을 통하여 루마니아와 스위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유사한 신비현상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 일어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한다. 루마니아가 독일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듯이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의 정치적 압력을, 아일랜드는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폭탄은 누가 설치한 것일까? 엘리아데는 혁명가 브란의 비정치적인 기여만을 기념하는데 분개한 민족통일주의자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브란의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교황지상권자(Ultamontanist)와 반계몽주의자(obscuranist)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범인의 신분은 알 수 없지만 도미니크처럼 콜롬반도 비와 번개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신비롭게 구하고 수명이 100살까지 연장되었다.

엘리아데는 융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상징을 연구하는 에라노스(Eranos) 모임을 통하여 융의 입장을 지지하던 학자들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며 상징주의와 종교학에 대한 비전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신비한 지식(gnosis)에

---

27) Mircea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Cosmos and History* (195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 154-159. 엘리아데는 고대인과 현대인을 비교하며 전자는 후자의 운명적 태도와는 달리 신화와 의례의 창조적 반복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로터의 자유와 창조를 실천한다고 주장한다.

대한 탐구는 엘리아데의 평생을 통한 과제였다.[28] 소설에서 도미니크는 번개가 일상 속에 현현하는 사건의 의미를 융의 "신비적 연합"(*mysterium conjuctionis*)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청년의 주장과 연결시킨다. 대극의 일치(*coincidentia oppositorum*)는 인간이 상실한 단일한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의 철학의 관점에서 대극은 대립되지 않고 하나로 무효화된다. 선과 악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절대자와 비존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융의 집단무의식과 원형 개념에 의존하여 무의식이 의식으로 침범하는 현상을 신비주의의 용어로 설명하였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핵전쟁의 종말을 예견하면서도 인류가 위기 앞에 불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미니크는 "사고하는 불행한 인간"을 대신하여 "후기 역사적 초인"이 등장하여 인류의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 지속적으로 진화만 하는 것인가? 혹시 퇴화의 가능성은 없을까? 엘리아데는 젊은이의 증언을 통해 인류는 우주적이며 역사적 윤회의 개념, 즉 "영원한 반복의 신화"(125)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29] 1968년 100세를 맞은 도미니크는 멕시코와 스칸디나비아를 여행하였다. 이처럼 엘리아데는 도미니크를 진리를 탐구하는 한 수도사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순례의 여정을 따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의 통합성과 단일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을 주제로 소설을 마무리한다. 고향을 떠났던 도미니크는 오랜 여행을 마치고 신화의 영웅처럼 고향으로 귀환한다. 1938년 부활절에 고향을 떠났던 도미니크는 1938년 성탄절에 돌아온 것이다.[30] 장소의 동일성은 시간의 연속성으로 그 귀환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다. 도미니크는 카페에서 오랜 친구들의 환영을 받는다.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도미니크는 친구들에게 장자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곧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 그가 살았던 미래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건들을 조목조목 언급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하지 않고 다만 2차 세계대전의 임박한 조짐을 인정한다. 도미니크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새로 난 이들이 다시 빠지며

---

28) Seven M. Wasserstrom, *Religion after Religion: Gershom Scholem, Mircea Eliade and Henry Corbin at Erano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23-36.

29) Eliade,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p. 141.

30) 엘리아데는 1938년 7월 14일 루마니아 정부에 의하여 체포되어 4개월 동안 복역했다. 1941년 미카엘군단의 반란으로 정부가 점복되자 엘리아데는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작품활동에 집중했다.

거리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는다. 번개를 맞은 후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외적 젊음을 지닌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자신에게는 내적 젊음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다. 엘리아데는 1939년 생 온드라스 출신 오드리고(Martin Audricourt)라는 도미니크의 여권을 언급함으로써 도미니크의 회춘 사건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도미니크은 분명 방황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이 상실했던 내면의 빛을 찾았다. 처음에 절망 가운데 자살을 결심했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수용하는 인물로 변화된다. 무의식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이상에 대한 도전을 다시 시도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 인생의 목표가 성취될 시점에 있었지만 도미니크는 그 기원에 대한 탐색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라우라의 환생이었던 베로니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녀를 떠난다. 라우라와의 이별과 베로니카의 이별에서 '이별'이라는 사건 자체는 회춘을 전후하여 모두 동일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 구별된 사건으로 남는다. 외적인 신체와 능력은 젊음을 회복했지만 도미니크의 변함없는 의식의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었다. 다음 생애에는 모든 인류를 두렵게 만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라는 도미니크의 마지막 말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동양적 성자의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준다(136).

6. 결론: 분석심리학적 엘리아데 읽기

우리는 지금까지 『젊음 없는 젊음』에 나타난 엘리아데의 무의식과 시간에 대한 이해를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난해한 서사구조와 다양한 종교전통의 등장으로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무의식의 돌연한 출현과 시련과 방황을 통해 성장하는 종교적 인간의 모습은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이룬다. 1930년대 루마니아 민족주의를 정교회(Orthodox Church)의 신학에 기초하여 종교적인 힘으로 부흥시키려했던 '젊은' 엘리아데의 숨결이 느껴지는 회상의 글이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루마니아의 국경을 넘어 세계주의적이며 인류평화적인 경향을 다분히 보여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노년의' 엘리아데의 사상적 변화를 발견한다. 새로운 휴머니즘은 과학주의, 합리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적 토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엘리아데가 꿈꾼 신인류는 역사적 폭력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의미와 희망을 읽을 수 있는 "종교적 인간"의 탄생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고 원초적 꿈의 시간으로 회귀할 수 있

는 "후기 역사적 인간"의 귀환인 것이다.

앞으로 종교학자 엘리아데의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의 종교학적 저서들에 나타난 종교이론들은 그의 문학작품들에 반영되어 등장인물들의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그의 소설들은 자서전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남긴 네 권의 일기(Journal)와 두 권의 자서전(Autobiography)을 비교한다면 그의 문학적 상상력에 담겨있는 역사의 폭력에 저항하는 종교학적 재평가의 차원을 발견하여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31]

엘리아데의 후기 소설을 대표하는 『젊음 없는 젊음』은 노년의 코폴라감독이 흥행에 상관없이 영화로 제작할 만큼 무의식과 시간에 대한 인간의 심오한 의미탐구를 담고 있다. 물론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의 잣대로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무의식이 의식 안으로 침입하고, 꿈과 현실이 연속적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들이 역사 안에 표출되는 엘리아데 소설의 '기괴한' 서사구조는 종교학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의 교차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요청한다. 『젊음 없는 젊음』은 인류가 직면한 핵무기의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행동방향을 제시한다. 역사의 폭력에 사로잡혀 더 이상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하여 꿈을 꾸며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엘리아데가 제시하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삶은 외적 요건에 대한 비관적 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 힘에 대한 재발견, 즉 의미의 잉여로 향할 수 있는 영적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제어: 미르체아 엘리아데(1907-1986), 『젊음 없는 젊음』, 문학적 상상력, 칼 융(1875-1961), 분석심리학, 시간, 무의식, 종교적 민족주의

원고접수일: 2009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14일

31) 엘리아데는 1945년부터 1985년까지 40년 동안의 일기를 남겼고, 1907년부터 1969년까지의 일생을 자서전으로 남겼다.

참고문헌

김종서, 「서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박승길, 김홍철, 『현대신종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 49-102.

안 신,「엘리아데의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학에 대한 연구 - 그의 자서전적 소설 《마야트레이》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3호 (2008), pp. 238-260.

안 신, 「엘리아데의 종교학과 인도철학의 영향: 그의 종교경험과 인도수학 (1928-1931)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51집 (2008년 6월), pp. 135-162.

Ahn, Shin. "Rethinking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Mircea Eliade." XXII World Congress of Philosophy, August 1, 2008.

Edward, Linda. *A Brief Guide to Belief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Eliade, Mircea.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Cosmos and History* (195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_____. *Yoga: Immortality and Freedom* (1958), 정위교 역, 『요가』, 서울: 고려원, 1989.

_____. *Das Heilige und das Profane*, (1958),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_____. *Autobiography*, vol. 1, trans. by Mac Linscott Ricketts. London: Harper & Row, 1981.

_____. *Ordeal by Labyrinth: Conversations with Claude-Henri Rocquet*, trans. by Derek Colt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_____. *Autobiography*, vol. 2. trans. by Mac Linscott Ricket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_____. *The Quest: History and Meaning in Religion* (1969). 박규태 역, 『종교의 의미: 물음과 답변』, 서울: 서광사, 1990.

_____. *Shamanism*, (1974), 이윤기 역, 『샤마니즘』, (서울: 까치, 1992), p. 31.

_____. *Youth without Youth*, trans. by Mac Linscott Richet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Ellwood, Robert. *The Politics of Myth: A Study of C. G. Jung, Mircea Eliade, and Joseph Campbell*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Jung, Carl G. *Memories, Dreams, and Reflec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89.

_____. *Psychology and Religion*, 이은봉 역,『심리학과 종교』, 서울: 창, 2001.

_____. Grundwerk,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서울: 솔, 2002.

Rennie, Bryan. "The Life and Work of Mircea Eliade," In *Mircea Eliade: A Critical Reader*, ed. by Bryan Rennie. London: Equinox, 2006, pp. 5-16.

Sharpe, Eric.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1975), 윤이흠·윤원철 역, 『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86.

Strenski, Ivan. *Four Theories of Myth in Twentieth-Century History*. I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1987.

Wasserstrom, Seven M. *Religion after Religion: Gershom Scholem, Mircea Eliade and Henry Corbin at Erano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Unconsciousness and Time in Eliade's *Youth without Youth*:

An Analytical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Ahn, Shin

This paper examines Mircea Eliade's unconsciousness and tine founded in his novel, *Youth without Youth* from an analytic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this novel, unconsciousness invades into human consciousness in several events. Dominic Matei, an old man became young by sudden lightning on Easter and began his long journey to seek for the origin of time and consciousness. He met his first lover who died and was born again as a different woman. Connecting Christian time and space with Hindu ideas of reincarnation and avatar, Eliade reminds his readers of the importance of meanings in the circle of life and death.

The background of this novel is clearly related with the 1938's Rumanian political turmoil, when Eliade was arrested due to the suspicion as member of the Iron Guard, a far-right religious nationalist movement for the renewal of Rumanian culture. In order to endure the sufferings from terrors of history, Dominic escaped from hands of political leaders and scientists. He kept to communicate with his unconscious self, so-called, double and finally realized the power of new humanism. After enlightened, he died without any fear, hoping for the next world.

In conclusion, we should reconsider his religious novels and history of religions by exploring his journals and autobiographies. Though Jung's analytical psychology can't explain all dimensions of Eliade's system, it is one of good tools which we can use to understand his literary imagination in *Youth without Youth*.

Key Words: Mircea Eliade(1907-1986), *Youth without Youth*, literary imagination, Carl Jung (1876-1961), analytical psychology, time, unconsciousness, religious nationalism